

## 전주시정 민선 6기 3주년 약자 · 공동체 · 정의 시정 구현

### 문 대통령 공약 '문화특별시 지정' 구체화 위해 범시민 지원기구 설치 · 지원 특별법 제정키로

김승수 전주시장이 민선 6기 3년째를 맞아 1년을 문화로 부강한 전주를 만들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동력으로 대규모 범시민 지원기구를 설치해서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자 시정, 시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시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 등으로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전주시가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한 전북 뭉 찾기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문화산업화 선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도록 총 매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 정에서 전주시민들과 약속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식화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김 시장은 국가시책에서 지역의 시대, 도시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원동력이 될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해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시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특별) 회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대 선도와제를 제시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도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권, 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으로 구성되고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지정받아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민간차원의 추진동력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선도와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팀장급 이상으로 행정 실무 추진단을 꾸려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제정 등 추진방향 설정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지원체계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부처 내 지원체계가 구축될 경우,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부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했다.

민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추진여건이 마련되면, 전주 문화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이달 중 국회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위한 세미나를 갖는 데 이어 8월까지 범시민위원회 출범, 전주포럼 및 시민위원회 운영, 정부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동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주 문화특별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문화특별시는 전주의 전통문화자산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전주를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문화특

별시로 격상시켜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첫발을 떼는 계기를 만들어,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꿈을 전주시가 가장 앞장서서 이뤄내겠다"며 "문화로 부강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北, 레드라인 넘으면 한미 대응 알 수 없다"

#### 문 대통령, 미사일 발사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 관련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질 않길 바란다"며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과 만나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표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북한이 오늘 주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발언과 관련있는 표현이다.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해결과 대화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발로 맞선다면 한미 양국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뉴시스

### 오늘 '반쪽장마'... 전북에 비

5일은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반쪽장마'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4일 "내일 중부지방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들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충청남부는 새벽 한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오겠다"며 "남부내륙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4일부터 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경남 30~80mm, 전북, 경북(북부 제외), 제주도 10~50mm, 강원영동과 영서남부, 경북북부, 충청남부 5~20mm 등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청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 도, 올 추경 5조4536억원 편성 | 본예산 대비 4.7% 증액... 예산안 도의회에 제출

전북도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 심의 요청했다.

이는 일반회계 4조 9,733억원과 특별회계 4,803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5조 1,585억원 대비 2,951억원(5.7%↑)을 증액한 5조 4,536억원 규모이다.

세입인 전년대비 지방세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변동 등 세수전망 불확실성으로 현행유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초과수입, 자체 재정지출 효율화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1,20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했다.

세출은 민선 6기 4년차를 맞아 공약 등 성과를 가시화 할 도 핵심사업 마무리 및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맞게 대응했다.

이번 추경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 서민생활안정 및 공약사업, 도 3대핵심사

업의 완성도 제고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 지원에 1,436억 원 증액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일자리 여건개선,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 등 총 56건 1,436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에 17건 150억원, 교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 및 근무환경개선 지원 등 일자리 여건개선 7건 43억원, 공공서비스개선사업 및 장애인콜택시구입비 지원 등 일자리기반 서민생활안정에 30건 530억원, 시군 및 교육청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건 713억원 등이다.

또 공약사업에 78억원을 증액했다. 공약사업의 완성도와 국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총 7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전통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8.4억원,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13억원, 한국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 전개 3.5억원, 금융타운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3억원 등을 증액편성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억7천만원을 반영,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복지부 가이드라인 맞췄다.

아울러 도정 3대 핵심과제는 81억원을 증액했다.

농민, 농업, 농촌이 즐거운 삼라농정을 기반으로 미래농업을 이룰 스마트농생명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1.6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6.7억원, 바이오활성소재육성지원사업 17.7억원 등 총 25억원 증액 편성했다. 전북투어패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

광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15억7천만원, 문화관광축제지원 8억7천원 및 2018년 전라도 천년의 봄 조성을 위해 3억4천만원 등 총 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탄소소재의 상용화 촉진과 연관산업의 융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실용화 촉진사업에 10억5천만원, 복합 섬유소재산업 육성에 12억7천만원 등 총 2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월 11일부터 7월 25까지 열리는 제3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추경(38개 사업 1조 1,315억원) 결과 우리 도에 배부되는 예산은 보통교부세 추가분(330억원 규모)과 함께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우리 모두가 주인공"

#### 송 지사, 태권도선수권 도민 성원에 감사 표명

송하진 전북지사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우리 모두가 최고였고 주인공이었다"고 밝혔다.

4일 송하진 지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도민들의 성원과 참여에 감사를 표명했다.

송 지사는 "이번 대회의 경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최고였다"며 "선수과 조직위원회, ITF시범단,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도민 등 함께 웃고 함께 흘렸던 모든 분들이 감동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군이 최고의 품질을  
**'이토록 훌륭합니다'**

열매의 고장 임실이 빚어낸 보물, 농축산물!

이웃사랑 - 맛있는 임실로주 매운맛 복숭아  
사과나무 - 달콤한 맛있는 사과  
이웃사랑 - 맛있는 임실로주 매운맛 복숭아  
이웃사랑 - 맛있는 임실로주 매운맛 복숭아